

고잔지 절

고잔지 절은 조동종(불교의 한 종파)의 절로 1327 년에 지어졌습니다. 아름다운 단풍과 국보인 불전으로 유명합니다. 역사적으로도 지역 내에서 큰 역할을 맡아 왔습니다.

불전

불전은 고잔지 절 창건 이전부터 있었으며, 일본 국보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2 세기 말부터 13 세기 초까지의 일본 불교 건축의 한 양식인 가라요(또는 젠슈요)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이 건축 양식은 중국 송나라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 양식의 전형적인 특징은 조종처럼 생긴 화두창, 이중으로 된 지붕, 둥그스름한 지주(지마키) 등입니다. 지붕은 편백나무의 껍질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기둥에는 1320 년 4 월 5 일 건립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잔지 절의 불전이 건축 연대가 기록되어 있는 일본에서 가장 오래된 가라요 건축임을 알 수 있습니다.

쇼인(시치쿄센쿄노마)

이 건물은 조슈번(현재의 야마구치현)을 통치했던 모리 모토요시(1785~1843)가 1835 년에 기진한 것입니다. 에도 시대 말기, 막부와 반체제파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던 가운데 교토에서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하자 반체제파는 교토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1863 년 9 월 30 일, 반체제파의 중요 인물 7 명이 도망쳤고, 그중 5 명이 고잔지 절에 숨어들었습니다. 이들이 사용한 방은 현재 '시치쿄센쿄노마(시치쿄라고 불리던 중요 인물들 중 5 명이 숨어 있던 방)'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다카스기 신사쿠와 고잔지 절의 거병

경내에는 군마를 탄 혁명가 다카스기 신사쿠(1839~1867)의 동상이 있습니다. 조슈번의 무사였던 다카스기 신사쿠는 메이지 유신(1868)을 이끈 중요 인물입니다. 그는 천황을 받들고 외세를 몰아내자는 '존왕양이'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막부(도쿠가와 정권)를 무너뜨리기 위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1865년 1월 12일, 다카스기는 조슈번 내의 막부 지지파를 물리치기 위해 고잔지 절에 무사와 서민들을 모아 혼성군을 조직했습니다. 이 반란은 고잔지 거병 사건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다카스기의 군세에는 후에 일본의 총리가 되는 이토 히로부미(1841~1909)가 이끄는 역사대(리키시타이, 스모 선수들로 구성된 부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조슈에서 도쿠가와 정권을 지지하는 세력을 몰아냈습니다. 이는 도쿠가와 정권이 무너지고 새로운 메이지 시대(1868~1912)가 시작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